

박 대통령 '핵 도미노' 발언에 미국 술렁

WSJ인터뷰 "북핵실험, 주변국에 핵무장 명분 제공"

美 군사·외교 전문가들 '韓·日 일정시점 핵 보유' 우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주변국들에 독자적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해 핵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 발언에 워싱턴 외교계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일본과 한국이 일정시점에 가면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가 온존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핵 도미노'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비확산·군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중국의 군사적 패권 확장과 북한의 핵위협으로 대변되

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미국 정보소식지인 '넬슨 리포트'에 기고한 글에서 "만일 동북아의 핵도미노가 시작된다면 미국이 지난 60년 넘게 구축해온 동아시아 동맹체제가 종식되고 국제비확산 체제도 존엄을 고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의 엄중한 예언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릴 김볼 미국 군축협회(ACA) 사무총장은 "미국은 과거 한국과 대만이 핵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핵무기를 원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의 자카리 퀘 부편집장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핵도미노를 일으킬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국제적 평판이나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을 고려하면 핵무기 보유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처럼 국제경제에 깊숙이 통합된 국가들은 외부세계와 단절돼 살 수 없다"며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재래식 군사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워싱턴의 일부 비확산·군축 전문가들은 최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일정시점에서 핵보유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지시점에서는

핵 도미노

한 국가가 핵무장을 하면 다른 국가들 역시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핵무장을 하게 되는 것.

미국의 핵무기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한 흐름과 미국의 군사력 쇠퇴 속에서 독자적 핵보유를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적 싱크탱크인 외교정책연구소(FPI)의 로버트 자라테 정책국장은 이달 초 '프로젝트 2049 연구소'를 통해 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핵무장한 적국들의 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연극 등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주는 사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퇴직해도 일 놓지 못하는 한국인

유효 은퇴 연령 71.1세

노후 대비 부족...OECD 2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선진국들은 정년퇴직 나이 이전에 조기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 대조를 이뤘다.

이는 그만큼 한국이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월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3세)에 이어 2위였다.

여성은 평균 69.8세로 칠레(70.4세)에 이어 역시 2위를 차지했다. 유효 은퇴연령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 더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로 실질적인 은퇴 시점을 뜻한다.

남성의 경우 멕시코와 한국인이 70세가 넘고 칠레 69.4세, 일본 69.1세, 포르투갈 68.4세, 아이슬란드 68.2세 순이었다.

룩셈부르크는 57.6세로 가장 낮고 벨기에 59.6세, 프랑스 59.7세로 3개국에 60세에 못미쳤다. OECD 평균은 64.2세였다. 여성은 칠레와 한국에 이어 멕시코(68.7세), 아이슬란드(67.2세), 일본(66.7세), 포르투갈(66.4세) 순이었다.

벨기에와 슬로바키아는 58.7세로 가장 낮다. OECD 평균은 63.1세다.

한국 남성의 경우 유효 은퇴연령이 정년퇴직 등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공식 은퇴연령(60세)과는 11.1세 차이가

나 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컸다. 정년퇴직 후에도 일터에서 가장 많이 일한다는 뜻이다. 멕시코는 유효 은퇴연령이 72.3세로 최고지만 공식 은퇴연령이 65세로 7.3세 격차가 나 2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칠레 4.4세, 일본 4.1세, 포르투갈 3.4세, 터키 2.8세 순이다.

반면에 룩셈부르크는 유효 은퇴연령(57.6세)이 공식 은퇴연령(65세)보다 7.4세 낮았다. 연금을 받는 시기보다 7.4년 더 일찍 은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 여성의 경우 유효 은퇴연령(69.8세)이 공식 은퇴연령(60세)보다 9.8세 많아 칠레(10.4세)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반면에 벨기에에는 유효 은퇴연령이 58.7세, 공식 은퇴연령이 65세로 오히려 유효 은퇴연령이 6.3세 더 적었다. 유럽 선진국들은 남녀 구분없이 이런 경향을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퇴직금, 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어 고령임에도 노동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유럽 선진국들은 조기 은퇴에 여유를 누리고 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2%로 10년 전인 2003년(48.6%)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여성은 같은 기간 27.8%에서 29.0%로 1.2%포인트 올랐다.

고령자 중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다. 60세 이상 주식투자인구는 2004년 54만8000명에서 2012년 104만5000명으로 8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됐다.

/연합뉴스



국왕과 대통령 "웃어요" 세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 국왕(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2006년 즉위후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 테헤란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이슬람 시아파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은 수니파 왕가가 주로 지배하는 아라비아반도의 걸프 군주국과는 대체로 절교로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연합뉴스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 국왕

딸 비리힘으로 불명예 퇴위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 국왕(사진)이 2일(현지시간) 퇴위를 결정했다고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밝혔다. 라호이 총리는 "카를로스 국왕이 퇴위 의사와 함께 왕위 승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전했다. 후계자는 펠리페(45) 왕세자다.



올해로 76세인 카를로스 국왕은 지난 1975년부터 39년간 스페인을 통치해왔으며, 재임 기간동안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군주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딸 크리스티나(48) 공주의 비리힘의가 불거지고 부정부패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스페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 퇴위 결정의 이유라고 BBC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드디어 풀려난 아들 아프가니스탄 반군 탈레반에 포로로 붙잡혀 있다 석방된 미군 보병 버그달 병장의 아버지 밥 버그달과 어머니 제니 버그달이 1일(현지시간) 고향인 아이다호주 보이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밥 버그달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먼 타향으로 갔던 자신의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中 언론 "중국, 헝안면 민주화운동 25주년 앞두고 임전태세 돌입"

(6월4일) (중 전시상황)

사태 재평가 기습 시위 예상

위구르족 독립 움직임 대비

중국이 이를 앞두고 다가온 헝안면(天安門) 민주화 운동(헝안면 사태) 25주년(6월4일)을 앞두고 준 전시상황인 '임전태

세'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당국은 최근 군대와 무장경찰, 소방 당국에 통지문을 보내 임전태세 돌입을 지시했으며 이런 상황은 앞으로 2개월간 계속될 것이라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신(博迅)이 1일 보도했다. 보신은 전국 관공서들은 자체 시설 보호

에 들어갔고 소방차들은 거리에서 즉각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단오제에 열린 전통적인 용선 축제 계획도 모두 취소됐다고 전했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헝안면 25주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태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기습 시위가 전국으로 예상되는데다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위구르족의 움직임에 대비한 측면이 있다고 보신은 보도했다.

그러면서 보신은 이번 임전태세 돌입과 관련해 ▲권력투쟁설 ▲경제 위기설 ▲베트남과의 전쟁 준비설 등의 추측도 내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 · 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축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 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 들을때 대화 · 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동구청 구도청 일남로 남광주 농협 소리큐보청기 화순 천변로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